

2021년 1월 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3절)

◎ 찬 송 / 325장(통359)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8절(신약p.333)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말씀선포 / 교회 안에서 세우는 바른 관계

2021년 새해 첫 주일예배를 합니다. 올 한해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첫 예배를 이렇게 영상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새롭게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히 식어지고,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지체라는 인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교회 안에서 세우는 바른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거리에 따라 친밀하고 서먹해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이는 것이 녹록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임을 알고 더욱 사랑하며 기도로 도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태도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더욱 힘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식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위로여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1.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로, 직분을 맡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또 함께 동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서로 귀하에 여겨야 함을 이야기 합니다. 본문 12~1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과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와 많은 믿음의 봉사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사역을 인정하고, 질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더욱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서로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며, 성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 안에서는 직분에 따른 권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품어야 하는 형제애와 자매애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사역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하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 본문 14~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도덕적 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 심각한 시험에 빠진 자들도 있습

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주고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큰 좌절과 낙심으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내 주위를 돌아보며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 더욱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없는지? 마음이 연약해 지고, 몸이 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없는지? 성도는 바로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보며 어쩌면 지금이 더욱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임을 알아 기도하고 격려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지체,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지 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은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 지체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며,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도와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폐 회 / 주기도문